

등장인물 : 독도(주인공), 사무라이, 강치, 독도 주민, 갯

#1. (독도가 자신의 내적갈등 때문에 독도 관련 인물을 소집함)

여러분들..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제 정체성 때문입니다. 분명 저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땅인지. 일본의 땅인지. 너무 헷갈려서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정체성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인 겁니까?

#2. (일본 사무라이가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함)

사무라이가 갑자기 책상을 팡 치며.

지금 뭐라고 하는거मु니까??? 다케시마 조센징 꺼 아니데스 다케시마 니혼징 꺼 맞데스

1905년 일본 내각회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한 후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에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스무니다. 이 조약을 보면 독도는 그 이전부터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므니다. 즉, 독도는 그 이전부터 우리의 땅이었던 거이므니다

#3. (조선 선비가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임을 증명함)

선비 등장. 한국 땅이라는 증거.

아니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자네의 역사적 무지함에 내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 우선 이것을 보소. 이것은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제 41호 인데, 여기서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 강원도에 편입시켰다는 자료이오. 이 외에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1946년 1월 연합군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을 발표했던 것을 보아 독도는 명백한 이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소이다. 게다가 자네 나라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은 거리가 무려 157.5KM 아니겠는가? 우리 울릉도는 독도랑 고작 87.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모든 측면에서 봐도 독도는 우리 땅일세. 독도는 우리 땅!

#4. (여전히 갈등 중인 독도)

이 말도 맞는거 같고 저 말도 맞는거 같애. 뭐야..! 더 헷갈리잖아...!!

다른 사람 없어요? 저 많은 증거가 필요해!!

#5. (독도에서 안타까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독도의 특산물 강치가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함)
강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치입니다. 일본이 저희에게 한 일을 알려드리죠. 1900년대 초 일본의 상업적 어획 기록을 살펴보면 그 세기 전환기에 저희 동족은 3200마리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1915년에는 불과 300마리만 잡힐 정도로 급감했고 1930년대에는 수십 마리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1940년대에 저희는 결국 멸종하였고, 1994년에 저희 강치 무리들은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선언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슬픈 일이죠. 인간들이 빨리 해결해서 제2의 강치같은 일이 없기를 빌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6. 독도 주민 : (독도주민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하소연함)

저는 이 아름다운 섬에 1965년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부였고 오징어 배를 이끌고 새 어장을 찾아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섬에 발 붙일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저는 섬 주변엔 전복양식장을 만들며 차곡차곡어업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기서 판지를 걸었습니다. 저는 군 당국에 정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독도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정부의 대답은 “이 섬은 특수작전지역이다.” 였습니다. 저는 한낱 지형상의 우리 영토가 아니라 터를 잡고 생활하는 터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1981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주소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본적은 독도입니다.

#7. (아직도 갈등 중인 독도)

아아아.. 모오오오르으으으으게에에엤어어어어

#8. (화면 속 누군가에게 질문하며)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지?